

#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 - 정연희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최 미 진\*

차 례

1. 들머리	3. 언어적 공식성과 새로운 여성 주체의 형성 전략
2. 구성적 공식성과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합일 전략	4. 마무리

### 1. 들머리

1990년대 들어 대중소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이론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범람하는 이론들만 무성할 뿐 대중소설의 서사전략과 향방을 마련하는 데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대중소설을 폄하하는 연구 태도에서 기인하지만, 아무튼 이 방면의 연구자들에게 까다로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대중소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대중소설의 창작과 향유는 자본주의적 상업전략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러한 문화산업을 “대중기만으로서의 계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몽”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문화산업의 양식이 위대한 예술작품과는 달리 ‘동일성’에 대한 대응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예술작품에서 양식이 진정한 보편성과 화해하려는 희망 속에서 지배적인 보편성의 형식 속에 들어가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면, 문화산업 아래 진정한 양식은 문화라는 이름 아래 ‘중화’되어 있는 ‘지배’의 심미적인 등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sup> 결국 문화산업은 계몽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들의 유희를 부추기는 한편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만적 책략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대중소설의 창작과 향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sup>2)</sup> 바로 이 때문에 연구자들이 대중소설의 체계적인 연구를 기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소설의 의미작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홀의 지적대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대중들의 포괄적인 합의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가라는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전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을 고찰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sup>3)</sup> 대중들의 합의나 이탈은 사회문화적 권력의 문제들과 연루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적 통제 역할은 대중들에게 단순히 반영되기 보다는 재현된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은 이러한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선택과 제시, 구조화와 형태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대중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의식들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잠재적인 갈등, 조정, 화해, 병합 등의 가능성을 지닌다.<sup>4)</sup> 그렇다면 대중소설 또한 형상화된 언어 영역 속에서

- 
- 1) M. 호르크하이머 & Th. W. 아도르노(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계몽의 변증법』(문예출판사, 1995), 175-183쪽 참조.
  - 2) 이러한 점은 프랑크푸르트학파가 관공주의적, 엘리트주의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마틴 제이(황재우 외 옮김), 『변증법적 상상력』(돌베개, 1981) 제6장을 참조할 것.
  - 3)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한나래, 1996), 제3장 참조.
  - 4) 이데올로기적 구성체의 복합적 특성과 함께 그 매개를 연구할 필요성은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한 바 있다. 볼로쉬노프의 ‘행동적’ 이데올로기와 관념의 ‘수립된 체계’, 알튀세르의 ‘실제상황에서의 이데올로기’와 ‘이론적 이데올로기’, 그람시의 ‘실제적 의식’과 ‘공식적 의식’ 등으로 구별하기, 윌리엄스의 ‘감정의 구조’의 생성적 형태의 환기,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 등이 그러한 예이다. 테리 이글튼(여홍상 옮김), 『이데올로기 개론』(한신문화사, 1995), 제2장 참조. 특히 홀이 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성 뿐만 아니라 저항과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하겠다. 대중 소설에 작용하는 의미작용의 매개변수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대중소설의 양식과 변형태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대중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중에게 작용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함의 또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 정연희의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연희는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波流狀」이 당선된 이래 당대의 열악하고 부조리한 사회역사적 상황과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규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존재에 주목한 작가이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에 대한 논의는 몇몇 작품에 대한 서평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문단에서 여성 작가들이 가지는 열악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1960년대 이후 그녀의 작품들이 대중소설적 성향을 띠으로써 논평 대상에서 멀어진 듯하다. 그렇기에 그녀의 소설에 대한 논의는 대개 초기 단편들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녀의 소설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가의 초기 작품들은 향후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정연희의 작가론을 쓴 천이두는 “에고의 추구와 그 처리”가 그녀의 문학적 기초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대부분 도시를 배경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지닌 인물들이 인간 에고의 주체적 윤리적인 양상과 객관 현실에의 비판적 양상의 양면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상진은 이러한 평가를 1950년대에 풍미했던 실존주의 사상과 연계시켜 실존주의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그녀의 작품들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색”에 중점을 두고 1950년대의 위기상황과 접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문제, 그리고 시대적

---

적한 이데올로기의 여러 측면들은 그림시의 헤게모니 개념에 힘입은 바 크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고정된 상태라기 보다는 특정한 투쟁 현장의 일시적 정복상태로 그 지배성과 저항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대중을 단순히 수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배척하기 보다는 진보적이고 반동적인 특성에 주목한 점 등이 그의 저작에 잘 드러나 있다. 임영호 편역, 위의 책, 20쪽 참조.

5) 천이두, 「에고의 구도적 대현실적 자세-정연희론」, 『현대한국문학전집』 13권 (신구문화사, 1981), 472~476쪽 참조.

상황과 인습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여성의 실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여기에서 그는 여성의 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상황과 인습이 결합되지 않은 경우 여성은 남성 주인공 내부의 이미지형 인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결합된 경우에는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연희의 초기 단편소설들이 인간의 존재, 특히 여성의 자리매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데에 모아진다. 한국전쟁으로 사회 각 방면의 기계들이 충돌하면서 겪게 된 혼란상은, 특히 여성 주인공의 경우 인습이라는 멍에가 함께 짐지워짐으로써 문제를 더욱 다각화시켰다. 정연희는 1960년대초부터 대중적 양식을 끌어들여 여성 주인공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갈등, 대립, 조정, 화해하는 국면들에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본고는 『목마른 나무들』, 『아가』, 『석녀』<sup>7)</sup>를 중심으로 여성의 자리매김 문제에 좀더 천착하면서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대중소설, 특히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소설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고, 나아가 한국 대중소설의 서사 전략에 관한 이론적 틀거리를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구성적 공식성과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합일 전략

예술작품이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내용만큼이나 전혀 새로운 형식의 창조에 기인한다. 그러나 형식의 새로움은 무(無)에서 나오지 않는다. 형식은

6) 이상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여성적 투시-정연희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한국여성소설연구회, 한길사, 1997), 345~346쪽 참조.

7) 『목마른 나무들』(《여원》, 1961)과 『아가(雅歌)』(《여상》, 1963)는 여성월간지에 각기 연재되었다가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특히 『목마른 나무들』은 1963년 여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래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인문출판사에서, 1981년부터는 민예사에서 재출간되었을만큼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그리고 『석녀(石女)』는 정연희의 출세작으로 『고죄(告罪)』(중앙출판공사, 1970), 『비를 기다리는 달팽이』(대운당, 1978)로 이어지는 3부작 중 첫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그녀의 변화된 서사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창작 초기에 저항과 약효화된 수동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 전통과 물리적 세계가 예술가에게 제시한 일련의 암시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의 형식에 관한 작가의 창조적 모험은 참조사항과 비교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중 소설은 좀더 전통적인 형식에 hip하는 정도가 크다 하겠다. 카웰티는 그것을 공식성(formulas)으로 설명한다.

공식성은 개별적인 작품 속에서 사용된 서사적이거나 극적인 관습들의 구조이다. 이것은 크게 언어적 공식성과 구성적 공식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취급하는 방식으로서 특정한 시대나 문화에 한정되어 사용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보편적인 이야기 원형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보다 큰 구성의 형태에 관련된 것으로서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존재해왔던 것이다.<sup>9)</sup> 이러한 공식성들은 대중소설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작품이 환기하는 미학적 즐거움은 모든 인식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통합 메커니즘과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은 바로 이러한 공식성과 그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대중소설, 특히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대중소설에서는 어떠한 공식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의미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애정의 삼각관계’는 대중소설의 대표적인 구성적 공식성으로서 서사의 발전, 대립, 조정, 화해 국면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 삼각관계는 한 쌍의 남녀 사이에 다른 하나의 갈등 주체가 개입함으로써 발생한다. 애정의 문제를 두고 인물들의 선택상의 고민, 모함과 증오, 질투와 복수 등의 다분히 감정적인 포물선들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요 장치로 활용된다. 더욱이 이러한 삼각관계는 한 작품 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독자들에게 생동감과 긴장감을 부

8) 움베르토 에코(조형준 옮김), 『열린 예술작품:카오스모스의 시학』(새물결, 1995), 255쪽.

9) John G. Cawellti,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Formula Stories as Art and Popular Cult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5~8쪽 참조.

10) 움베르토 에코(조형준 옮김), 위의 책, 133쪽 참조.

여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한다.

『목마른 나무들』의 경우, 애정의 삼각관계는 약혼관계인 오성우와 서주연 사이에 김제철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서주연을 짝사랑하는 권영진이 오성우와 서주연 사이를 뺏돌면서 서주연의 갈등은 보다 다각화된다. 뿐만 아니라 서주연의 친구 박혜숙이 권영진의 약혼자라는 점에서 애정의 삼각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한편 김제철을 사이에 두고 정부인 이윤이와 서주연, 그리고 새로운 애인인 오성희와 서주연 사이에서 갈등의 포물선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띤다. 이렇듯 다섯 개의 삼각관계는 작품의 서사적 전개에서 매번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을 유인한다.

『아가』 또한 『목마른 나무들』만큼 애정의 삼각관계가 복잡하다. 유세련은 북한군 부역 혐의로 체포된 한우경과 부부 관계이지만, 이미 결혼 전부터 그들 사이에 박철하가 개입하고 있어 갈등이 잠재해 있다. 한우경의 체포 이후 박철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 부부 사이에 개입한다. 그러나 그는 강진우를 대신 내세우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애정의 삼각관계는 다각화된다. 즉 유세련을 중심으로 한 한우경과 박철하의 삼각관계는 박철하와 강진우의 관계와 중첩된다. 그리고 강진우를 짝사랑하는 딸 한명주로 인해 또 다른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이렇듯 애정의 삼각관계는 이 작품의 서사 전개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박철하의 음모가 밝혀지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작품을 읽어나가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석녀』에서 안지원과 남성운의 부부관계는 출발부터 그리 원만하지 않다. 남성운은 식모 부산택을 비롯하여 마담 플리즈 지은경, 대학 동창 이인숙, 성우 김미라 등 대상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나가는 인물이다. 남성운의 여성편력은 안지원의 갈등 요인들 중 하나였지만 습성화된 상황에서 이미 그것은 흥미거리일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영화배우 백 민의 개입은 안지원에게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 작품에서 애정의 삼각관계는 안지원의 성찰적 사유와 맞물려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자리매김이라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다.

이상에서 볼 때 애정의 삼각관계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기제이다. 이 때문에 대중소설이 상업적 전략에 부응한다고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정연희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애정의 삼각관계는 당대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결합됨으로써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한다. 사실적인 사회역사적 배경은 독자들에게 현실감을 부여하는 한편 타락한 현실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sup>11)</sup> 『목마른 나무들』에서는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붕괴 징조들이 표출되는 사회정치적 상황이, 『아가』에서는 서울 수복 후에 북한군에 부역한 사람들을 색출, 심문, 처형하는 상황이 각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상황은 개인적인 일화들의 중요성과 작중 인물들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독자들의 감정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독자들의 즐거움은 명백한 혼란 속에서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된다.<sup>12)</sup>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전통적인 도덕 의식을 확인하거나 그것을 새로운 경향의 가치나 태도와 통합하여 조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대중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사건 전개나 귀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형식적 경향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는 독자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의 예전을 만들어낸다. 복잡한 애정의 삼각관계 속에서 억눌려온 경향은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형식에 대한 예비추정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반목, 교란과 이탈 등은 문학적 관습에 따라 다시 해결로 이어질 때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위기 자체를 위한 위기가 아니라 해결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독자들은 예전의 즐거움, 미지의 것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즐긴다 하겠다.<sup>13)</sup> 『목마른 나무들』에서 서주연이 약혼자인 오성우 대신 김재철을 사랑함으로써 촉발되는 위기는 부정투표반대 시위현장 취재 중 김재철의 죽음으로 일단락된다. 『아가』에서도 유세련과 강진우의 동반 자살은 유세련이 유부녀에서 미망인으로 변화된 상황만큼이나 그들의 사랑이 박철하와 한명주의 질시 속에서 빛어내는 도덕적 위기의식을 끝낼게 한다. 물론 대중소설에서 가장 명백한 종류의 위기는 삶과 죽음의 사건을 포함하는

11) John G. Cawelti, 앞의 책, 261~262쪽 참조.

12) John G. Cawelti, 위의 책, 264~268쪽 참조.

13)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140~142쪽 참조.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과잉(plethora)이나 위협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sup>14)</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대중소설이 특정한 문화적 관습에 따라 도덕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식성으로서의 문학적 관습은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획득된 형태, 즉 선호도와 관습, 확신과 정서의 체계를 따른다. 이것은 그람시가 말하는 ‘상식’에 다름 아니다. 상식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민중이 갖고 있는 일반화된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인식 혹은 이해방식이다. 과학적 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애매하고 모순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식은 삶과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관념이다. 더욱이 그것은 엄격하고 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다양한 관념을 섭렵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상식은 사전에 구성된 것이며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장소나 시점에서 상식은 독자들의 판단 전체에 걸쳐 분명한 이유를 제공하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이다.<sup>15)</sup> 문학작품의 독서행위는 한편으로 독자들을 친숙한 상식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그것들을 선택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돕는다.<sup>16)</sup> 그렇다면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상식이란 어떠한 것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정연희의 작품에서 상식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위반을 금지하는 정서적 체계라는 준거틀로 작용한다. 서사의 귀결부분에서 그것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조정, 통합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주지하듯 『목마른 나무들』에서 서주연은 오성우의 약혼녀이다. 196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보자면 ‘약혼녀’의 기표는 ‘유부녀’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약혼자’가 아닌 ‘약혼녀’의 애정행각은 독자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약혼자인 오성우는 거의 완벽한 성인군자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 위기감을 배가시킨다. 따라서 서주연의 애정행각은 상식의 위반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금지는 김재철의 죽음으로 일단 종결된다.

14) John G. Cawellti, 앞의 책, 264쪽.

15) 안토니오 그람시, 앞의 책, 164~196쪽 참조.

16) 스투어트 홀, 앞의 책, 267쪽 참조.

마찬가지로 『아가』에서 유세련과 강진우의 죽음은 유세련에게 작용되는 상식의 금기체계에 다름 아니다. 남편인 한우경이 체포된 상태, 그것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세련이 강진우와 사랑에 빠져든다는 사실과 피난을 떠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랑 때문에 시어머니와 자식들을 내팽개친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상식의 심각한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독자들은 이러한 상식의 차원에서 위반을 촉발한 유세련에게 금기의 잣대가 휘둘러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은 유세련과 강진우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상식의 준거틀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맞춰져 있다. 독자들은 애정의 삼각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금기의 위반을 즐김과 동시에 비판적 잣대를 그 메커니즘에 통합시켜 안정감을 얻는다.

한편 정연희의 작품에서 상식은 일종의 현실효과에 조력한다. 현실효과는 재현과정 자체가 순환논리적 성격을 띤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가 없는 데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승인하는 가운데 형성된다.<sup>17)</sup> 대중소설에서 현실효과는 우연의 기제가 반복되고, 특히 거대한 사회역사적 상황에 대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개입하면서 형성된다. 대개 우연은 근대적인 논리적 인과율에 대비되는 전근대적인 수사학적 장치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이다. 그렇지만 문학작품에서 우연이 하나의 현실적 가능성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를 골라 특정한 형국을 만들어낸 다음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을 끌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연은 몇 가지 전제 조건만 갖추어지면 실제 생활에서도 발생하리라고 기대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대중소설에서 작중인물들에게 반복되는 우연은 독자들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게다가 작중인물들이 사회역사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와 결합될 때 독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이렇듯 계구성된 형태로써 우연은 실제 현실과 등가 관계를 가지면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독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다.

『목마른 나무들』에서 서주연과 김재철의 만남은 우연의 기제가 반복적으로

17) 스텐어트 홀, 앞의 책, 266쪽.

작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아가』에서 유세련과 강지운의 만남은 박철하의 계략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개인성을 지닌다. 박철하와 같은 적대적 인물의 설정은 사회역사적 상황만큼이나 그들의 만남이 상식의 위반이라는 의미작용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본 때 작중인물들의 사랑은 우연의 기제에 의존하되 그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현실효과를 획득한다 하겠다. 이러한 현실효과는 주지하듯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제와 접합되어 독자들 스스로 승인하게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조정, 통합, 통제되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작동하는 현실효과는 상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의 교육적 효과로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해 둔다.

### 3. 언어적 공식성과 새로운 여성 주체의 형성 전략

흔히 대중소설의 공식성을 가장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아무리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이더라도 일단 독자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필연적으로 대중화 과정이 뒤따른다. 앞서 고찰한 구성적 공식성, 즉 애정의 삼각관계, 도덕적 결말처리 방식, 우연적 사건 등은 이러한 대중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구성적 공식성은 대중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또 강화된다. 이것은 대중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근거인 동시에 그들에게 교육된 상식을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나 특정 시대나 장소에서 대중소설이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은 구성적 공식성에만 있지 않다. 혹자는 대중소설이 공식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세부적인 요소들만 대체하여 대중들의 취향에 영합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대중소설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세부적인 구성요소의 변화 뿐만 아니라 공식성에 대한 변화의 징후들을 보여준다. 그 변화는 대중들이 따르는 상식의

체계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필연적이다.

대중소설에서 공식성의 변형은 무엇보다도 언어적 공식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지하듯 언어적 공식성은 특정한 시대나 문화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대중소설에서 언어적 공식성은 대개 작중인물들을 성차에 따라 구별짓는 관습에서 잘 드러난다. 흔히 남성을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사회적 존재로 부각하는 반면, 여성을 사적 영역에서 남성을 보좌하고 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형상화한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이성, 정신, 일반, 객관, 합리성, 능동성, 강인함, 문화 등 세계 <안>에서 우월적이고 중심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에 비해 여성은 감성, 육체, 직관, 미분화, 수동성, 나약함, 자연 등 종속적이고 주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인 대립체계는 대중소설이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강하게 결탁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소설에서 언어적 공식성은 남성성/여성성의 위계적 질서가 강하게 침윤되어 있는 삼식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볼로쉬노프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상식적인 지식 속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재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단서를 언어 영역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기호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실체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닌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기호 속에 반영된 존재는 단순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굴절된다. 이같은 굴절은 지향점이 서로 다른 사회적 이해관계들이 이데올로기적 기호 속에 교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적 기호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강조점을 갖는 것은 그것이 생생하고 활동적이며 변화·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 계급은 이데올로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투쟁을 근절시키고 기호에 단일한 강조점을 부여하려고 한다. 단일한 강조점을 가지는 것은 곧 언어와 현실 사이에 확정된 등가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기호에 초계급적이며 영속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지배 계급의 존속을 도모한다.<sup>18)</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어적

18) M. 바호천 & V. N. 볼로쉬노프(송기한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홍

공식성에서 드러나는 남성성/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체계는 지배적인 기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효과적인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기호는 어떤 조건들이 성취되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연결지어진 의미들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미는 투쟁 중인 세력들의 상대적인 강도, 어떤 전략적 계기에서 그것들 사이의 세력 균형, 그리고 의미작용을 하는 정치의 효과적인 수행에 달려 있다 하겠다.<sup>19)</sup> 따라서 신구의 상식 체계가 갈등, 조정, 화해의 국면들을 재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언어적 공식성은 변화의 징후들을 드러낸다. 언어적 공식성의 변화는, 특히 여성 주인공들이 여성성을 규정하는 언어적 형식들 혹은 담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들에게 강요된 표상, 즉 상식체계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주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함의를 변화시켜 나가느냐는 언어적 공식성에서 엿볼 수 있다 하겠다.<sup>20)</sup>

『아가』에서는 상식을 오히려 강조하는 역설적 어법을 통해 여성 자신이 주체로서 당당하게 나서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우경의 체포 이전, 유세련은 상식체계에 합일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된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삶의 양식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강진우와의 만남은 그녀가 유지해왔던 삶의 방식을 성찰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울타리는 너무도 너무도 견고하다. 지금까지 메시에 수동적이기만 했던 세련의 손으로 부숴버리려고 하기에는 너무도 굳은 담벽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한우경의 아내였습니다. 아직도 한우경의 아내입니다.」

세련은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고 자신을 달래고, 또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했다. <중 략>

그러는 동안, 그 여자는 자기가 왜 한우경의 기억에 매달려 몸부림치려 하는가를 명백하게 알았다.

겨레, 1990), 35~36쪽 참조.

19) 스투어트 홀, 앞의 책, 269~270쪽.

20) 벤 에거(김해식 옮김), 『비관이론으로서의 문화연구』(옥토, 1996), 339쪽 참조.

그실, 유세련 자기는 강지운에게서 도피하기 위하여 그 애매한 고행(苦行)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다.<sup>21)</sup>

강진우와의 만남을 통해 유세련은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 정작 '자기 자신'이 방치되고 제외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녀는 상황 논리에 밀려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남편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만족하며 살아왔다. 물론 그것을 여성으로서 '당연한' 삶의 방식이라 여겨왔을 뿐 그 자체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사유도 없었다. 그러나 강진우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 특히 한우경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대면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강진우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 거부한다. 한우경이 처형되고 박철하·강진우·한명주와의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한우경의 아내라는 사회적 기표를 강조하는 어법을 구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조 어법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숨기려 하는 사실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데 조력할 뿐이다. 그녀는 '당연한' 상식의 논리에 밀려 거부했던 사실들을 이미 내심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주어진 사회적 기표들, 즉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위치들은 효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지만 자신을 한 여성 주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은 결국 그녀가 거부했던 사실들을 승인하고 강진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만 문제는 강진우와의 사랑에 대한 승인이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반으로 도덕적 비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에 그녀 자신의 사랑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순간 그들은 죽음을 맞는다.

주어진 삶을 투정없이 살아 온 셈이다. 그리고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물 하나 하나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는 일 없이 지내왔다. 거기에 결코 비굴이라든가 타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 우수(憂愁)야말로 까달이 분명치 않은……그리고 그의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가 문득문득 소리없이 가슴을 울려 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그 근원조차 더 들을 수 없이 오래전부터 숙명처럼 지정된 배우자(配偶者)가 없어서만도 아니다. 생활의 어느 한 구석이 불편해서도 아니다. 이리저리 전전(轉傳)하다시피 자라는 파

21) 정연희, 『아가』(신태양사, 1966), 233~235쪽.

거가 부끄럽거나 슬픈 것도 결코 아니다. 그것은, 졸업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예고없이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sup>22)</sup>

『목마른 나무들』에서도 강한 부정의 어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전통적 여성성을 부정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주연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오성우의 집에 가게 된 후, 오성우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녀의 삶의 잣대가 된다. 이것은 오성우의 강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서서히 “혼련되어 온 것”으로 서주연의 삶 깊숙히 내재되어 있다. 약혼자인 오성우에게 길들여진 서주연의 여성성은 순응적이고 규범적이다. 물론 이것은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합일되는 여성성이다.

그러나 서주연은 “결코 아니다”와 같은 강한 부정 어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갈등과 조정의 국면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을 긍정하려고 하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 나가려는 그녀의 의지가 감춰져 있다. 이 때 그녀의 지향점은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성이다. 특히 그녀가 이윤이의 삶의 방식을 접하면서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갈망은 증폭된다. 여기에서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오성우의 기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이윤이의 기준이 전면적으로 갈등·대립한다.

김재철과의 사랑 또한 서주연이 자신을 지배해왔던 여성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여성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그녀가 오성우 대신 김재철을 선택하는 과정은 자신 나름의 새로운 여성성을 마련하는 과정과 병치되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녀가 김재철을 선택하는 것은 보다 자율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녀의 의지는 실현되는 듯하지만 결국 김재철의 죽음으로 무산된다. 김재철의 죽음은 바로 여성이 독립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당대의 상식체계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렇듯 객관 현실과의 갈등 국면은 김재철의 죽음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서주연이 사실상 오성우와 파혼을 선언함으로써 객관 현실과 화해하기 보다는 또 다른 갈등 국면을 암시해 둔다. 그

22) 정연희, 『목마른 나무들』(민에서, 1985), 23~32쪽.

러니까 그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석녀』에서는 이중적 담론을 사용하여 남성성/여성성의 경계를 해체, 전복시킨다. 이중적 담론은 여성성이 담론 내에서 스스로 결정되는 방식, 즉 여성적인 것이 결핍, 흉내냄 그리고 역전된 주체의 재생산으로서 드러나는 방식을 반복하고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편에 서서 남성적 논리를 능가하고 교란시키는 것을 말한다.<sup>23)</sup> 이중적인 담론 속에서 여성은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입증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표현 가능성과 경험 가능성, 그리고 자기 고유의 전복적인 공간을 창출해낸다. 그것은 지배적인 남성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부정, 해체, 전복한다. 이때 여성에게 내재된 전통적 여성성 또한 부정된다. 그러니까 이중적 담론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와의 대립, 갈등 국면과 조정, 화해 국면을 동시에 사용하는 셈이다.

여성이 이중적 담론을 구사하는 방식은 남성의 문학에서 상속한 여성의 이미지, 그 중에서도 특히 천사와 마녀라는 대립 이미지를 공격, 수정, 해체, 재진하는 것이다.<sup>24)</sup> 천사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가정적이며 이타적인, ‘관조적 순결성’을 갖춘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이러한 천사 이미지 이면에는 마녀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 마녀의 이미지는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순종적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상이다. 마녀는 헌신적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여성이며 말할 이야기거리가 있는 여성이다. 그렇기에 마녀는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을 지닌 여성이다. 이러한 마녀의 이중적 담론은 여성이 지배적인 남성적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점이 된다.<sup>25)</sup>

한 여성으로서, 한 아내로서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접대의 예절을 유쾌하

23) Toril Moi(임유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한신문화사, 1994), 165쪽.

24) 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76쪽.

25) Toril Moi, 위의 책, 67~70쪽 참조.

고도 깎뚝하게 해냄으로써 자기라는 하나의 여자를 보여 주고 싶은 것이 그 첫째였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히 비어 있는 점을 갖고 있는 듯한 남편을 그러한 것으로 매워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의 눈을 속이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비참한 내심(內心)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 심리를 캐고 또 캐어 보면 결국은 그 여자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그 고된 일들을 지금까지 별로 불평없이 해냈다고도 볼 수 있다.<sup>26)</sup>

안지원이 이중적 담론을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는 ‘양처’라는 천사 이미지로 가장하는 것이다. 남성운의 생일잔치가 2박 3일 동안 거창하게 이뤄지는 동안 그녀는 전혀 싫은 표정 없이 음식준비에서부터 손님접대, 그리고 뒷마무리까지 말끔하게 해낸다. 이러한 안지원의 행위는 양처 이데올로기<sup>27)</sup>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천사 이미지로 가장하고 연행(performance)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성운은 사회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남성이다. 그는 “여자, 노름, 술, 그리고 실의 속을 해매는 친구들에 대한 유난히 영웅적인 동경심” 등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사회적으로 과시하는 데만 열중한다. 그의 생일잔치도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남성성의 진정한 실현태라기 보다는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불안을 숨기려는 책략이다.<sup>28)</sup> 그러니까 그의 남성성 과시하기는 그것의 허약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과시적 행위가 빈번하고 심각해질수록 안지원의 양처 이미지와 극단적으로 대립되면서 그 자신의 지배적 위상은 격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안지원이 양처 이미지로 가장하는 행위는 표면적으로 자신을 억압된

26) 정연희, 『石女』(문예사, 1968), 105쪽.

27) 양처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여성에게 새롭게 요구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변형태이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학사, 1993), 106쪽 참조.

28) 남성운의 행위는 다분히 마키스모적 성향을 띤다. 마키스모(machismo)는 자신의 남성다움에 자신을 잃고 불안해진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정복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여자들이 하지 못(안)하는 무모한 것을 함으로써 자신이 남자인 것을 과시·과장하는 행위이다. E. J. Michaelson and W. Goldschmidt, “Female Roles and Male Dominance among Peasants”,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27 (4), 346쪽.

여성으로 위치지우는 방식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운의 지배적 지위를 격하 시킴과 동시에 자신을 주체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한 방식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이중적 담론은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동시에 거부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녀가 공영(共營)하는 주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 공식성의 변화 가능성이 이전의 두 작품에 비해 보다 더 잘 드러나 있다.

#### 4. 마무리

지금까지 1960년대에 발표된 정연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대중소설의 서사전략을 밝히기 위해 공식성(formulas)을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적 공식성과 언어적 공식성으로 나누어 이데올로기적 지배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고찰했다.

먼저 구성적 공식성에서는 애정의 삼각관계의 전개과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을 주된 독자층으로 하는 대중소설에서는 대부분 애정의 삼각관계를 사용하여 대중적 효과를 얻고 있었다. 복잡한 애정의 삼각관계는 인물들의 갈등과 대립의 국면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목마른 나무들』과 『아가』에서는 사회역사적 상황을 여기에 결합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새로운 가치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애정의 삼각관계가 대개 도덕적 결말을 취한다는 구성적 공식성은 독자들에게 예견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애정의 삼각관계에서 드러나는 위반들을 즐기는 한편 독자들에게 사회적인 상식체계, 그러니까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상식은 일종의 현실효과를 가지는데, 그것은 대중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우연의 기제를 독자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대중소설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려는 독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였다. 이렇듯 구성적 공식성은 대중적 효과를 지닌 문학적 장치로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현할 수 있는 서사전략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공식성에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장치라기 보다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사전략을 취했다.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정연희 소설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이 여성 주체의 형성 전략으로 드러났다. 언어적 공식성은 언어적 형식과 담론을 통해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적인 대립체계를 제현하는 문학적 장치의 틈새를 공략하고 있었다. 『아가』에서는 상식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어법을 통하여, 『목마른 나무들』에서는 강한 부정적 어법을 통하여 여성이 주체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거나 길들여진 여성성을 거부하고 새로운 여성 주체를 확립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선 두 작품에 비해 『석녀』에서는 과거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동시에 허물 수 있는 이중적인 담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있었다. 이중적 담론은 여성이 전통적 여성성에 순응하는 과정이 곧 남성성의 허구성을 표면화시키고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순응하는 동시에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여성 주체의 형성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 공식성의 변화 가능성은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준거로 삼고 변화의 흔적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은 자칫 순환론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찰해 본다면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적 효과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연희 소설에서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1960년대 대표적인 대중소설가 박계형의 작품들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아울러 이것은 당대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상황 뿐 아니라 소설 출판 현황을 고찰할 때 보다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 study of a narrative strategy in Jung Yon-Hee's novels in the sixties

Choi Mi-Jin

This thesis is the research of popular narrative strategies in “Mongmarn namudl”, “Aga”, and “Suknje” that Jung Yon-Hee had written in the sixties. It is based upon the formulas of popular novels in order to research the narrative strategies, and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ideological control and changes in views of structure and language.

In view of the structural formulas, these texts get the effective popularity by foregrounding the triangle love affair. Specially, in combining the love affair into the social-historical situation, the writer make readers accept a new system of values in “Mongmarn namudl” and “Aga”. Then, she brings violations of the love affairs to a social common sense at the conclusion. These conclusions change crises of violations into senses of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y bring the pleasure of a precognition to readers. The third, readers are willing to accept the accidentality due to the reality of commonsense. And these novels satisfy readers' needs and expectations, who try to cognize the reality through the popular novels. Like this, the structural formulas is the literary device that has the popularity, and takes charge of a representation which a ruling ideology is based upon the commonsense.

Unlike the structural formulas, the linguistic formulas can presents a change of the ruling ideology. If the linguistic formulas is a literary device which presents the oppositive system such as masculinity/ femininity, Jung

Yon-Hee changes it through a linguistic form and discourse which conquest their cracks. In "Aga", she uses an expression which emphasizes extremely the commonsense. In "Mongmarn namudl", through negative expressions, she makes a chance to cognize the subjectivity of female, shows a will which refuses dominated femininity, and establishes a new female subjectivity. And in "Suknje", she uses a dual discourse which can break up the traditional boundary like masculinity/ femininity. It is a strategy that woman accommodates herself to the patriarchal ideology and refuses it. At the same time, it is a possibility of the female subjectivity. Though the linguistic formulas has the danger to be restored to the dominated ideology, the signs of changes will be used as an explanation which popular novels has a universal effect.